

사설

불교 정보화의 길을 밝힌다

불교계 사찰과 단체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를 조사한 '불교정보화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정보화에 대한 불교계의 적응 지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둘째로 보면, 불교계는 여러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를 구체적 지수로 밝혀내는 일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보화분야에서는 막연히 '소극적이다' 뒤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선에서 평가의 잣대를 거두기 일쑤였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에서도 불교계는 소외되어 있었다. 때문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등 언론 3사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심화된 정보화 실태 조사를 벌인 것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 다지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화 차원의 컴퓨터 활용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적응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 기반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쌍방향 교류와 업무처리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정보화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의 정보화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프라의 구축이다. 일부 종단은 이미 종단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종단 차원을 넘어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가 내포하는 모든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이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다. 불교는 무한한 지적 자산과 문화, 관광 자원을 안고 있다. 이들을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관련 콘텐츠 개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지원 필요

우르는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가 내포하는 모든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것이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다. 불교는 무한한 지적 자산과 문화, 관광 자원을 안고 있다. 이들을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관련 콘텐츠 개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같은 대형 사업을 누가 추진할 수 있겠는가? 불교계의 여러 종단과 단체들이 '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해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불교정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이 협의회의 구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불교계가 'IT 강국'이란 슬로건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더욱 요망된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불교계의 정보화를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의지 높고 할 일 많아

보고서는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담보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 교계 안팎의 언론들이 이미 보도한 대로 현황은 미흡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총괄적인 결론이다. 이는 기쁨이 주어진 것 같지만 빠른 템포로 사회 변화를 따라잡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불교계가 정보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역설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불교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불교계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 단순한 사무자

교육부·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선정

'조선불교통사' 등 5건 포함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5일 기초학문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201과제 등 모두 766개 연구 과제에 7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선정된 불교 관련 과제는 5개로 국학 고전 연구 분야의 △〈조선불교통사〉 △〈보조전서〉 △〈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의 번역과 주석 작업, 국내외 지역연구 분야의 △파키스탄 간다라의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 △서일본 지역 한국 불상, 불화 작품의 조사연구 및 전산화 작업이 앞으로 2~3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에 이들 5개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불교계는 불교학 연구의 기반 확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조선불교통사〉와 〈보조전서〉, 〈선문염송〉의 번역과 주석 작업은 이들 문헌이 한국 불교사와 불교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면서도 재정적 뒷받침 등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부분 번역에 머물러오던 것들이다.

1918년 출판된 〈조선불교통사〉(이능화 편집, 최남선 교열)는 한국 불교사 연구의 필수적 자료로 한국 불교사와 관련된 종합적 자료 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산 스님(중국대 정각원장)이 연구 책임을 맡아 2년간 원문 번역과 주석,

각 용어와 인물, 중요 개념 등에 대한 색인 정리, 상·중·하 각 권에 대한 해제 작업을 벌인다.

보조사상연구원이 2년간 진행할 〈보조전서〉(책인연구원 계관 스님) 국역 사업도 429쪽에 이르는 전체번역은 처음이다. 번역과 색인 작업뿐 아니라 지물에 대한 연구 목록을 정리하고 각 권마다 해제 논문 수록할 예정이다.

한국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본으로 꼽히는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설화〉의 회본(書本)에 대한 한글 역주 작업을 이진오(부산대 교수)팀이 맡아 3년간 진행한다.

이밖에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국내 최초로 한국 불

교 미술의 원류인 간다라 지역의 불상과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현지에서 벌인다.

법산 스님(중국대 정각원장)은 "이번 선정은 기초학문 분야에서 불교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불교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종무실장 윤청하씨



정부는 2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장(1급)에 윤청하(56·사진) 전 문화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전남 해남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윤 종무실장은 1980년 주미 대사관 공보관을 시작으로 수단, 캐나다 홍콩대사관을 거쳐 98년 문화부 종무실 종무관, 예술국장, 문화정책국장을 지냈다.

한편 윤청하 종무실장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을 인사차 예방하고 "원만한 종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미타암 200m지점 고속철 관통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을 둘러싼 종교,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구간 중 일부가 전 통사찰보존지구인 미타암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을 지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속철공단이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허가신청을 낸 미타암 통과구간에 대해, 7월 25일 이미 현상 변경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 미타암 주지 용문스님과 내원사 신갈 지음스님 등은 "총무원장이나 미타암 주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상변경 허가는 엄연한 위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진각종, 위덕대 지정 추진

국방부·조계종에 승인요청·재청원서 발송

진각종이 위덕대학교의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진각종은 위덕대학교를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학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7월말 조계종 포교원에 재청원서를 발송한데 이어, 8월9일 국방부 장관 앞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재청원서 및 승인요청 서신에서 진각종은 "조계종의 의견을 수렴해 군중에 한해서는 조계종의 의식을 따르도록 했으며, 논산 입소 대대법당을 신축해 기부하는 등 군불교 발전에도 기여해왔으나 아직까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각종은 96년 5월 국방부에 '위덕대의 군중사관후보생 선발 지정 청원'을 제출한 이후 지난해 재청원서를 냈으며, 조계종 포교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은 교리와 의식이 다르고,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고, 여전히 이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각종 한영규 포교

연구원(전 군법사)은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진각종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천태종 금강대학교도 군중사관후보생 선발대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영우 기자

태고종 임시 총회 22개 종법 제·개정

태고종은 5일 신촌 분원에서 제85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전교 사업, 법제법 등 22개 종법을 제·개정함으로써 조직재정비와 종단 개혁에 나섰다.

총회의원 52명중 37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처리하지 못한 2000년도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2일 열기로 한 태고종 원로회의는 원로의원들의 세납을 70세 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성이 연기됐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포교원·남양주 보광사 주말수련회 공동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남양주 보광사(주지 선우)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말 수련회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술과 태극권 그리고 참나 돌아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1박2일도 가능)간 열린다.

포교연구실은 이번 보광사 수련회 실시를 시작으로 주말수련회 운영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등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다. (031)594-1316

김재경 기자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 1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보건을 위해 전문간병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후원회 범포시 임근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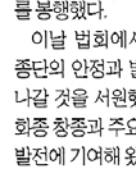
▶ 대구은행 006-05-003306-1
▶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 ●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대한불교종 중정 해산대중사 추대

대한불교 법호종은 6일 호텔 앰배서더에서 제7대 중정 해산대중사(사진)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지도자들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해산스님은 법회중 창종과 주요 정책 제시 등 종단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봉영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청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고요 생각이 되는 사진(사진, 사도,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이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견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 관련된 문의나 투고,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청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고요 생각이 되는 사진(사진, 사도,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인쇄인 : 김규석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1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경봉 큰스님, 70여 년간의 성찰과 깨달음의 일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큰스님의 일기. 최두, 시와 어울린 아름다운 사인은 숭한 법민,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

스님의 일기에는 제방(諸方)의 눈부른 남자(男子),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格外)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법정

조문객이 10만이 넘고 장례행렬이 2km나 이어진 불교계의 전설 경봉 스님의 일기는 수행자답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 많다.

조선일보

80여 편의 시, 20여 개의 화두, 주고받은 법담, 자연친화적인 9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빛을 발하는 명구들..... 내밀하고 그윽한 목소리를 들려준다...스프르서울

경봉큰스님

15세 출가 평생 풍도사에서 선종(禪宗)을 도남겼다. 1953년부터 국학원에 조지(叢師)로 주시하면서 이룩한 권공의 선종(禪宗)을 이어 봉행하는 수행장소로 머물렀다. 1973년 1월 여운을 남긴 나이에 매월 10일에 일회 정기법회를 시작했고 매년 수천의 불자들이 그의 사자후(師子後)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로 일백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최은하, 액자 하나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남자의 성공을 부르는 기 인테리어
신혼을 위한 기 인테리어
절경을 둘러치는 기 인테리어
이름답고 날씬해지는 기 인테리어
이성준 지음 | 율림 | 12,000원

돈이 모이는 집,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김전윤이 좋아하는 집은 이런 집
이런 옷차림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장식소품이 금전운을 부른다
이런 기구배치가 돈을 부른다
이성준 지음 | 율림 | 13,000원

TEL 953-0304 FAX 953-0306